

# 한국과 일본의 독도 홍보 비교

③일본  
외무성의  
홍보 비판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1.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3. 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疆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의 도항 금지\[안용복의 진술과 그 문제점\]](#)

[Q&A ③ ‘안용복’은 어떤 인물입니까?](#)

1. 한국의 독도 인식에 관해 독도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관해서는 ‘우산도’가 명확히 독도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록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혼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라 지증왕 당시 우산국 정벌과 관련한 ‘우산도’는 한국에서도 울릉도를 뜻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당시의 우산도를 독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에서는 마치 한국인들이 반드시 ‘우산도=독도’ 라고 주장하는 듯 소개하여, 한국이 주장하는 바를 왜곡하고 흐렸습니다.



1-2. 앞서서 등장하는 일본 측에서 '다케시마'를 인지했다는 부분에서도 일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두 섬이 다른 섬임을 인지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측 기록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지도·지리지보다 300여 년 앞선 『세종실록지리지』에서 등장합니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군

下皇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爲邑城由有四溫川在縣北四十四里興富

驛西仇水勿山洞驛三興富興古名德神德古名守山古名烽火四處全反仁山在縣南

山北准平海沙冬竹津山北准竹竹邊串北准山巨亘出道山北准三陟于山武陵二島在

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新羅時縣于山國一云鬱陵島地方

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分載戰如抵其國誑之曰汝若不服則即放此

獸國人懼來降高麗太祖十三年其島人使白言王獻其國誑之曰汝若不服則即放此

立等回來告島中有泰山從山項向東行至海一萬餘步向西行一萬三千餘步向南

行一萬五千餘步向北行八千餘步有村落基址七所或有石佛像鐵鐘石塔多

生紫胡蒿本石南草我太祖時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再命三

陟人金麟雨爲安撫使刷出空其地麟雨言土地沃饒竹大如柱鼠大如猫桃

凡物稱是

春川都護府使一人儒學教授官一人本貊地新羅善德王六年爲牛首州即唐太宗

年一云文武王十三年置首若州景德王改朔州一云首次若高麗成宗十四年乙未改春州團練使

屬於安邊州人以道途艱險難於往來至神宗六年癸亥略權臣崔忠獻陞爲安陽

都護府南宋寧宗後降爲知春州事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改春川郡十五年

乙未創改都護府別號壽春淳化所定又屬縣一基麟本高勾麗基知郡高麗改基

麟本朝因之鄉一史吞鎮山鳳山北在府母津北在府昭陽江有府北皆四境東距洪川四十



이 기사와 같이 당시 한국에서는 두 섬이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름의 혼동은 조선 측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산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울릉도만을 가리키고, 조선인들이 두 섬으로 인식한 것은 무조건 착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下皇山石城周回六百十六步五尺時以爲邑城由有四溫川在縣北四十四里興富

驛西仇水勿山洞驛三興富德神守山烽火四處全反仁山在縣南

山北准平海沙冬竹津山竹邊串北准山巨宣出道山可谷山于山武陵二島在

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新羅時縣于山國一云鬱陵島地方

難人以威來可以計服乃多以木造猛獸分載戰如抵其國誰之曰汝若不

立等回來告島中有泰山從山項向東行至海一萬餘步向西行一萬三千餘步向南

生紫胡蒿本石南草我太祖時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再命三

春川都護府使一人儒學教授官一人本貊地新羅善德王六年爲牛首州貞觀十二

年一云文武王十三年置首若州景德王改朔州一云首次若高麗成宗十四年乙未改春州團練使

屬於安邊州人以道途艱險難於往來至神宗六年癸亥略權臣崔忠獻陞爲安陽

都護府南宋寧宗後降爲知春州事本朝因之太宗十三年癸巳改春川郡十五年

乙未例改都護府別號壽春號光海鳳山屬縣一基麟本高勾麗基知郡高麗改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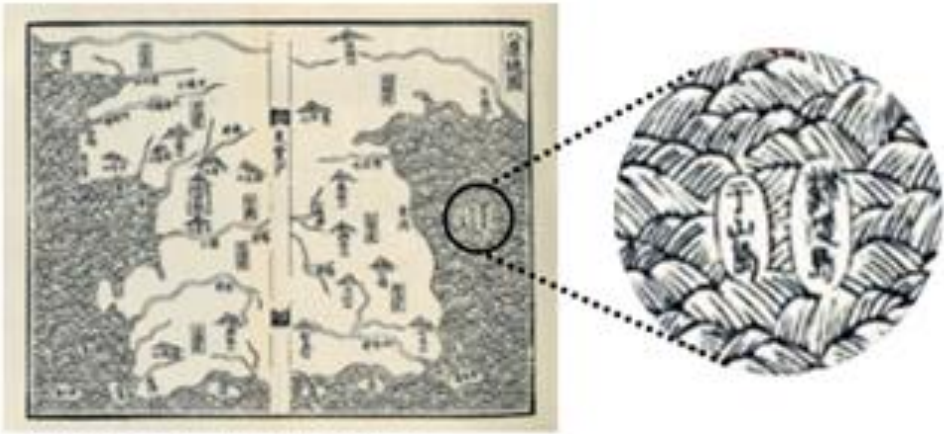
麟本朝因之鄉一史吞鎮山鳳山北在府母津北在府昭陽江有母揖四境東距洪川四十

더불어, 세종실록지리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의 일부로, 그 신뢰성은 상당수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 또한 그의 단독적인 진술이라고는 하나 국가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었다는 점,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건너가 관리를 사칭하고 송사를 한 것 자체는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마냥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의 다른 기록들도 이들 기록을 1차 자료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자료의 신빙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들 사료를 그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1-3. 한편 한국의 고지도,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서 우산도와 울릉도의 동서가 바뀌어 있다는 점을 들어, '우산도'라는 별개의 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울릉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Q&A ② 한국측의 고문헌 · 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16세기인 1531년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해당 지도인 <팔도총도>는 근대적인 지도 측량 기술이 사용되기 전에 그려진 지도로, 울릉도와 우산도 외에도 북방 경계선 부분이 매우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 18세기 이후의 지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방향 인식이 육지에서의 방향인식 보다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다르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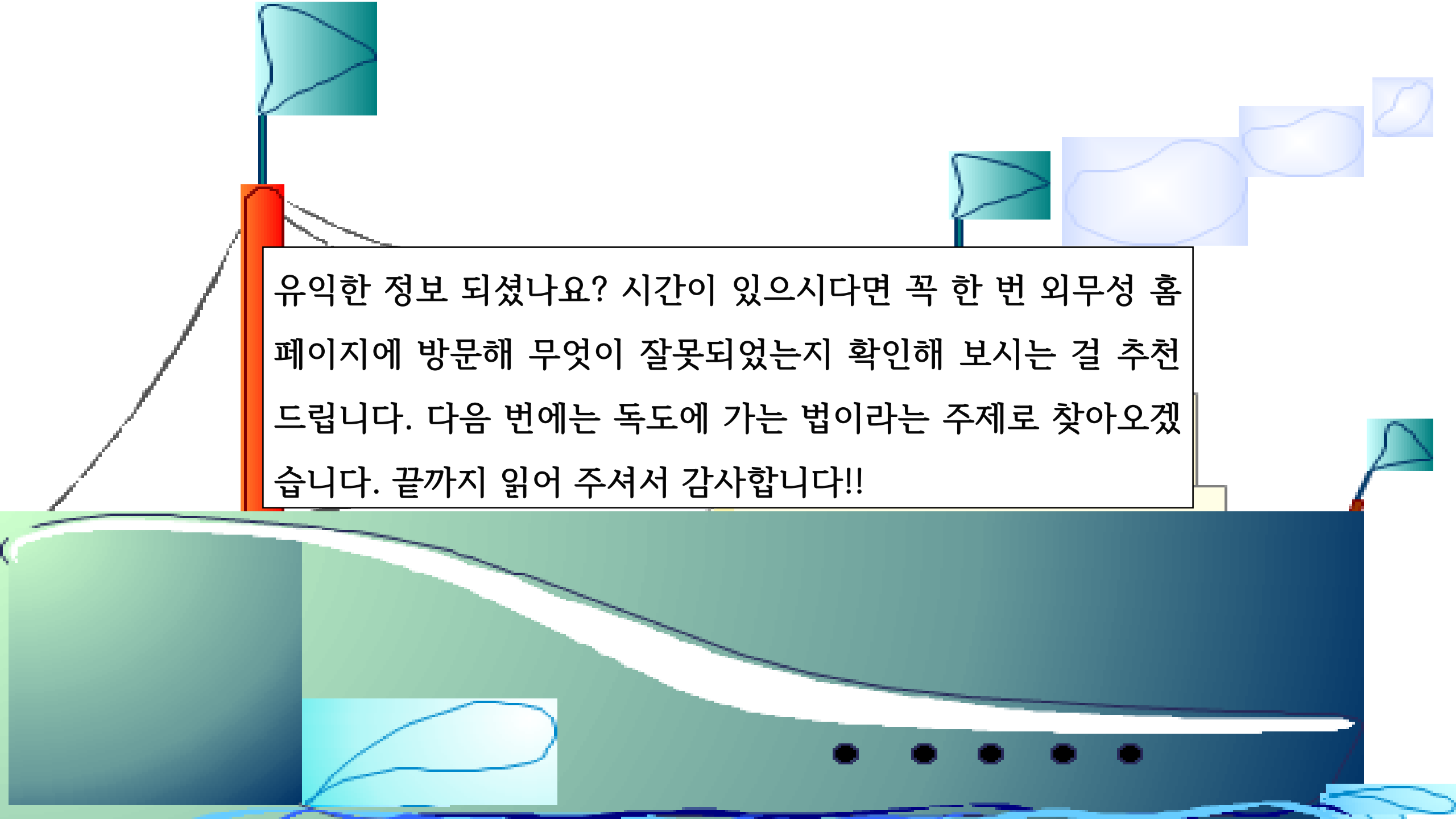


크기에 관해서도, 간단한 약도 형식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섬의 크기와 실제 크기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와 흑산도, 진도, 고군산도, 남해도, 거제도, 강화도, 교동도의 크기가 모두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측의 주장대로 이 지도가 섬의 크기를 반영하였다면 이 섬들도 각자 다른 크기로 그려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 측 자료로 제시된 지도들이 모두 18세기 이후의 지도들로, 동시대의 지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실측에 있어서 근대적인 측량 기술과 지도 제작법이 들어오기 이전의 지도들은 한계가 생길 수 있으며, 오히려 한국 측에서 더 오래전부터 독도와 우산도를 다르게 인식했음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 외무성 홈페이지에 방문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독도에 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독도에 대한(大韓)사랑' 많은 응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동해바다  
**독도사랑**



-페이스북 '독도에 大韓 사랑' 검색

<https://www.facebook.com/%EB%8F%85%EB%8F%84%EC%97%90-%E5%A4%A7%E9%9F%93-%EC%82%AC%EB%9E%91-390656688082412/>

- 네이버 블로그 '독도에 대한(大韓)사랑' 검색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onlyhappy01>

사진 출처: 외무성, 사이버 독도, 지식백과, 국가기록원, 한국학 중앙연구원